

HOOKS BROTHERS STUDIO:

FRAMING MEMPHIS'S BLACK SOUND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메피스 블랙 사운드 사진 기록



HOOKS BROTHERS STUDIO, NAT D. WILLIAMS ON-AIR AT WDIA
ca. 1950, 50.8 x 40.64 CM, ARCHIVAL INKJET PRINT

아르코미술관 공간열림

2025.10.16 - 10.31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멤피스 블랙 사운드 사진 기록

주최: 멤피스 미술관

기획: C. 로즈 스미스 (사진 부문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블루스, 가스펠, 소울, 그리고 록앤롤이 태어난 도시 멤피스는 시민권 투쟁의 유산을 간직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곳은 오랫동안 창의성과 실천적 운동이 맞닿으며, 리듬과 저항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B.B. 킹, 아이작 헤이즈, 아레사 프랭클린과 같은 예술가들이 도시의 유명한 빌 스트리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1968년 위생 노동자 파업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암살은 노동과 인권을 위한 전국적 운동을 촉발시켰다. 한편, 20세기 초, 분리정책과 사회적 격변의 한가운데서 카메라 뒤편에서는 깊이 있는 시각적 스토리텔링이 전개되고 있었다. 1907년 헨리와 로버트 훅스 시니어 형제가 설립한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는 1984년까지 73년간 운영되었으며, 멤피스에서 가장 저명한 흑인 상업 사진 스튜디오로 자리매김했다.

거의 80년에 걸친 시간 동안, 훅스 브라더스는 2세대 사진 작가인 찰스, 줄리아, 헨리, 로버트 훅스 주니어와 함께 멤피스 흑인 공동체의 풍부하고 입체적인 초상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일상의 기쁨, 포부 어린 자긍심, 그리고 문화적 변화를 기록하며 약 10만 장에 이르는 방대한 사진 아카이브를 형성했다. 이들의 작업은 미국 남부 흑인의 정체성, 공동체, 그리고 창의성을 폭넓고 다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들은 작품을 통해 흑인 가정, 지도자, 교육자, 성직자, 예술가, 음악가 등 수많은 이들의 유산을 보존했으며, 사진은 기억과 저항, 그리고 주체성의 매개체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훅스 브라더스 컬렉션에서 선별한 스무 점의 사진을 통해 1920년부터 1979년까지의 멤피스 음악 장면을 조망한다.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는 블루스 뮤지션 W.C. 핸디(W.C. Handy)와 같은 초기의 상징적인 인물, 캐논 저그 스톱퍼스(Cannon Jug Stompers)와 같은 포크 밴드, 포스탈 레터 캐리어스(Postal Letter Carriers)와 같은 오케스트라 스타일의 앙상블까지 폭넓게 촬영했다. 1960~70년대에 이르러 멤피스는 가스펠, 펑크, 소울의 중심지로 부상했으며, 알 그린(Al Green) 같은 아티스트와 판타스틱 사운즈(Fantastic Sounds), 바-케이스(Bar-Kays)와 같은 그룹들이 이를 대표했다. 흑인 청중만을 대상으로 한 미국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 WDIA의 전파를 타고, 도시 전역의 공연장에서 울려 퍼진 음악은 훅스 브라더스에 의해 기록되어 멤피스 흑인 음악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문화를 오늘날까지 전한다.

Hooks Brothers Studio: Framing Memphis's Black Sound

Organized by Memphis Art Museum

Curated by C. Rose Smith, Assistant Curator of Photography

Memphis, Tennessee, a city that gave rise to the blues, gospel, soul, and rock 'n' roll, is also known for its enduring legacy in the fight for civil rights. The city has long been a place where creativity and activism intersect, rhythm and resistance thrive—where artists like B.B. King, Isaac Hayes, and Aretha Franklin found their voice on the city's famed Beale Street, and where the 1968 Sanitation Workers' Strike and the assassination of Dr. Martin Luther King Jr. galvanized a national movement for labor and human rights. Amid the segregation and upheaval of the early 20th century, a profound act of visual storytelling was unfolding behind the camera. In 1907, brothers Henry and Robert Hooks Sr. founded the Hooks Brothers Studio, which would become the most prominent Black commercial photography business in Memphis by the end of its extraordinary 73-year operation in 1984.

Over the course of nearly eight decades, the Hooks Brothers, including the family's second generation of photographers—Charles, Julia, Henry, and Robert Hooks Jr.—developed a rich and nuanced portrait of Black Memphis. They cultivated a visual archive of nearly 100,000 photographs, documenting moments of everyday joy, aspirational pride, and cultural transformation. Their work offers an expansive and multifaceted view of Black identity, community, and creativity in the South. Through their practice, they preserved the legacy of Black families, leaders, educators, clergy, artists, musicians, and many others. Their photographs became vessels of memory, resistance, and empowerment.

This exhibition presents twenty photographs from the Hooks Brothers collection, offering a glimpse into the Memphis music scene between 1920 and 1979. The Hooks Brothers Studio photographed a wide range of musical acts, from iconic early figures like blues musician W. C. Handy, folk bands such as the Cannon Jug Stompers, and orchestral ensembles like the Postal Letter Carriers. By the 1960s and 1970s, Memphis had become a hub for gospel, funk, and soul, represented by artists such as Al Green and groups like the Fantastic Sounds and the Bar Kays. As performances filled the airwaves of WDIA, the first U.S. radio station dedicated exclusively to a Black audience, and echoed through venues across the city, the Hooks Brothers remained committed to documenting the dynamic and vibrant culture of Black music in Memphis.

훅스 브라더스 사진 아카이브는 글로벌 음악, 시민권, 그리고 문화 정체성을 들여다보는 강력한 시각적 틀을 제시한다. 멤피스에 거주하는 흑인의 삶을 거의 80년에 걸쳐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미지는 블루스, 소울, 가스펠의 부상을 담아냈다. 이러한 장르들은 현대 글로벌 음악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K-팝, R&B, 힙합에도 파급력을 미쳤다. 시각적 스토리텔러로서, 훅스 브라더스는 사진을 저항과 정체성의 민주적 도구로 사용하며, 일상의 삶과 시민권을 위한 투쟁을 기록했다.

그들의 작품은 한국 관객을 영향력 있는 사운드의 기원과 이어주며, 동시에 저항과 대표성을 향한 공동의 역사를 보여준다. 20세기에 한국이 사회적 저항과 문화적 표현을 통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양상을 보여주었듯이, 훅스 브라더스의 초상은 미국 민주주의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존엄과 존재감을 드러냈다.

훅스 브라더스는 민주주의를 단순한 제도적 영역이 아니라, 존재감·발언권·문화적 기억에 뿌리내린 삶의 경험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끈다. 예술가, 학자, 그리고 음악 애호가들에게 그들의 작업은 보이고 들리며 기억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열망을 매개로 문화를 잇는다. 훅스 브라더스는 민주주의가 스토리텔링을 통해 번성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 자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증폭될 때 그것이 세계적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The Hooks Brothers photography archive offers a powerful lens into global music, civil rights, and cultural identity. Documenting nearly 80 years of Black life in Memphis, their images captured the rise of blues, soul, and gospel, genres that have influenced modern global music, including K-pop, R&B, and hip-hop in South Korea. As visual storytellers, the Hooks Brothers used photography as a democratic tool of resistance and identity, preserving everyday life and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Their work connects South Korean audiences to the origins of influential sounds, while also reflecting shared histories of resistance and the quest for representation. Just as South Korea transitioned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during the 20th century, through social resistance and cultural expression, the Hooks Brothers' portraits asserted dignity and visibility for African Americans systematically excluded from American democracy.

The Hooks Brothers challenge us to see democracy not just as a government locale, but as a lived experience grounded in visibility, voice, and cultural memory. For artists, scholars, and music enthusiasts, their work bridges cultures through the shared human desire to be seen, heard, and remembered. The Hooks Brothers remind us that democracy thrives through storytelling, when ordinary people claim space in history, and their stories are amplified, becoming global legacies.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서울과 멤피스는 언뜻 보기에는 다른 점이 많아 보이지만, 두 도시를 잇는 공통의 매개가 있다. 바로 대중음악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K-팝이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다면, 멤피스 역시 20세기 전반에 걸쳐 음악을 전 세계에 전파해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는 단순히 멤피스 음악 현장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뮤지션과 그룹의 특정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녹음 스튜디오와 에이전시는 소속 음악가들의 홍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훅스 브라더스를 고용했으며, 정교하게 맞춘 의상, 치밀한 구도, 세심하게 스타일링된 헤어는 아티스트들을 풍부한 사운드만큼이나 강렬한 시각적 존재로 각인시켰다.

Despite being on opposite sides of the globe, Seoul and Memphis have more in common than meets the eye. Popular music is a thread that binds the two cities. While K-pop has arguably become South Korea's most influential cultural export over the past decade, Memphis too has a long history of disseminating its music around the globe during much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Hooks Brothers Studio not only documented Memphis's music scene but were also influential in crafting a certain look of a musical artist or group. Recording studios and agencies would hire the studio to take publicity photographs of musicians on their rosters. With carefully coordinated costumes, complex compositions, and meticulously styled hair, these artists became known for their striking image as much as their rich sound.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연혁

헨리 A. 훅스 시니어(1881–1972)와 로버트 B. 훅스 시니어(1890–1974)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흑인 소유 상업 사진 스튜디오 중 하나인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설립한 선구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진작가 형제이다.

헨리는 1890년대 후반, 멤피스 최초의 흑인 사진작가인 제임스 P.와 찰스 뉴턴 형제 밑에서 견습을 하며 사진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동생 로버트가 형의 길을 따라 사진 기술을 배우고, 1900년부터 독자적인 작업을 전개했다. 두 사람은 1907년에 파트너십을 맺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과 창의성이 교차하는 문화의 중심지였던 멤피스의 역사적인 빌 스트리트에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다.

훅스 브라더스는 초상사진과 상업사진을 전문으로 하며 수 세대에 걸친 흑인 가정, 전문인, 시민 지도자, 문화 예술인들을 촬영했다. 이는 짐 크로 시대를 넘어 멤피스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의 필수적인 시각 기록으로 남았으며, 흑인의 삶이 주류 언론에서 종종 왜곡되거나 배제되던 시기에 품격 있고 정교한 표현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형제는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들에게도 사진 기술을 가르쳤고, 사진 스튜디오를 다세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세기 중반 도시 재개발 시기에는 2세대 훅스 브라더스가 사업을 확장해, 멤피스의 전설적인 소울 음악 레이블인 스탱스 레코드 인근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스튜디오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뒤 1980년대 철거되면서,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상업 사진 스튜디오는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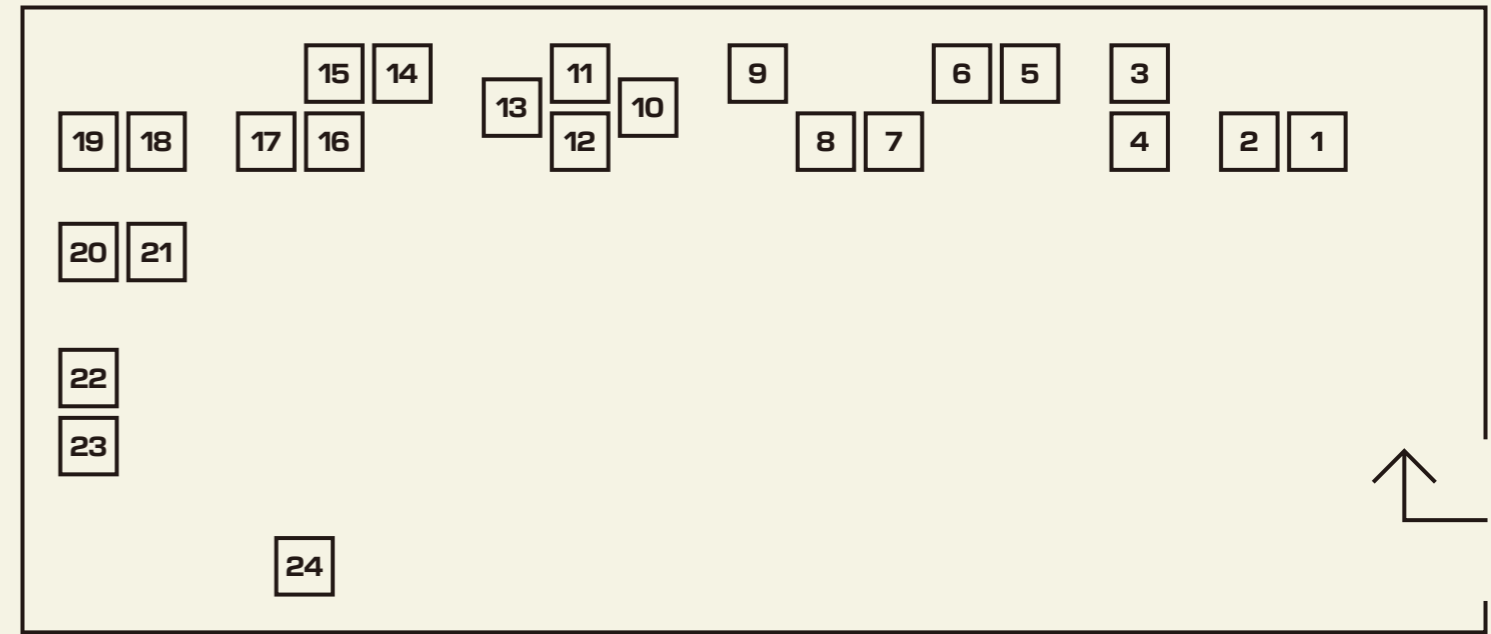
Hooks Brothers Studio Bio

Henry A. Hooks Sr. (1881–1972) and Robert B. Hooks Sr. (1890–1974) were pioneering African American photographers and the founding brothers of Hooks Brothers Studio, one of the longest-running Black-owned commercial photography studios in the United States.

Henry began his career in the late 1890s after apprenticing under James P. and Charles Newton, Memphis's first Black photographers. His younger brother Robert followed in his footsteps, learning the craft from Henry and beginning his own work in 1900. The two formed a partnership in 1907, opening their photography studio on Memphis's historic Beale Street—a cultural epicenter for Black life and creativity.

Specializing in portrait and commercial photography, the Hooks Brothers photographed generations of Black families, professionals, civic leaders, and cultural figures, providing an essential visual record of Memphis's African American community through the Jim Crow era and beyond. Their work gained a reputation for excellence and dignity in representation at a time when Black life was often ignored or misrepresented in mainstream media.

As they built their families, Henry and Robert trained their children in the business, transforming the studio into a multigenerational enterprise. During the urban redevelopment of Beale Street in the mid-20th century, the second generation of Hooks Brothers expanded the business, opening a studio in the 1950s near Stax Records, Memphis's legendary soul music label. Tragically, this studio was severely damaged by fire and demolished in the 1980s, marking the end of their commercial studio practice.



- 1**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W. C. 핸디 극장 마키 – 나우 온 스테이지(현재 상연): 더 도미노스 & 프레디 미첼 오케스트라»
 약 1950년경, 50.8×40.64 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W. C. Handy Theatre Marquee - Now on Stage The Dominoes Freddie Mitchell Orchestra
 ca. 1950, 50.8×40.64 cm, Archival inkjet print

- 2**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처치 파크의 바이넵 밴드»
 약 1920–1930년경, 40.64×50.8 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Bynum Band at Church Park
 ca. 1920-1930, 40.64×50.8 cm, Archival inkjet print

- 3**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랜스키 브라더스 남성복점, 마할리아 잭슨 마키 광고»
 약 1960년경, 40.64×50.8 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Lansky Bros. Men's Shop, Mahalia Jackson on Marquee
 ca. 1960, 40.64×50.8 cm, Archival inkjet print

- 4**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W. C. 핸디 극장의 남성 가스펠 싱어들»
 약 1960년경, 50.8×40.64 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Male Gospel Singers at W. C. Handy Theatre
 ca. 1960, 50.8×40.64 cm, Archival inkjet print

5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W. C. 핸디 극장의 빌리 홀리데이»

1951년,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Billie Holiday at W. C. Handy Theatre

1951,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뮤지션 텍스트

1951년, 재즈의 전설 빌리 홀리데이는 멤피스의 뉴 데이시 극장에서 카운트 베이시와 함께 공연했으며, 당시 상영 중이던 MGM 영화 <라이트 크로스>(Right Cross)의 휴식 시간에는 11세 피아니스트 슈거 차일드 로빈슨도 무대에 올랐다. 매진을 기록한 이 공연은 멤피스 최초의 대규모 재즈 쇼케이스로 기록되었다. 할러데이는 인종차별의 참상을 고발한 1939년의 상징적인 항의곡인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멤피스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이 노래를 불렀으며, 음악과 시민권 운동을 결합한 선구적 예술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Musician Text

In 1951, jazz legend Billie Holiday performed with Count Basie at the New Daisy Theatre in Memphis, alongside eleven-year-old pianist Sugar Chile Robinson during an intermission of MGM's movie *Right Cross*. The sold-out concert marked Memphis's first major jazz showcase. Holiday was renowned for her powerful 1939 protest song *Strange Fruit*, which she used to challenge racism. Performing it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in Memphis, Holiday cemented her legacy as a trailblazing artist who fused music with civil rights activism.

6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아이작 헤이스와 연인 미뇽 할리»

약 1950년경,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Isaac Hayes and Girlfriend, Mignon Harley

ca. 1950,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뮤지션 텍스트

아이작 헤이스는 멤피스 음악의 판도를 바꾼 인물이자, 스탱스 레코드 사운드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작곡가, 프로듀서, 연주자로 활동하며 데이비드 포터와 함께 공동 작업한 “소울 맨(Soul Man)”, “홀드 온, 아임 커밍 (Hold On, I'm Comin')"과 같은 히트곡을 통해 소울 음악의 방향을 제시했다. 1969년 앨범 <핫 버터드 소울>(Hot Buttered Soul)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 낭독 형식의 보컬, 확장된 그루브를 결합하며 R&B를 발전시켰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1971년 히트곡 “테마 프롬 샤프트(Theme from Shaft)”는 그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겨주었다. 소울, 펑크, 힙합에 깊은 영향을 미친 헤이스는 멤피스를 끝까지 자신의 기반으로 삼았다.

Musician Text

Isaac Hayes was a transformative figure in Memphis music and instrumental in cultivating the Stax Records sound. As a songwriter, producer, and performer, he shaped soul music with hits like “Soul Man” and “Hold On, I'm Comin',” co-written with record producer and singer David Porter. Hayes revolutionized R&B with his 1969 album *Hot Buttered Soul*, blending orchestration, spoken word, and extended grooves. His Academy Award-winning 1971 hit “Theme from Shaft” brought global acclaim. Deeply influential in soul, funk, and hip-hop, Hayes remained rooted in Memphis.

7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카운트 베이시»

약 1950년경, 50.08×64.96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Count Basie

ca. 1950, 50.08×64.96cm, Archival inkjet print

8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WDIA 방송 중인 내트 D. 윌리엄스»

약 1950년경, 50.8×40.64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Nat D. Williams On-Air at WDIA

ca. 1950, 50.8×40.64cm, Archival inkjet print

뮤지션 텍스트

내트 D. 윌리엄스는 1948년 멤피스 WDIA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의 디스크 자키로 활약하며 흑인의 목소리와 문화를 주류 라디오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고등학교 교사이자 칼럼니스트였던 그는 음악, 뉴스, 해설을 재치와 유머로 풀어내며 멤피스 흑인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쇼 <탄 타운 주빌리>(Tan Town Jubilee)는 WDIA를 미국 최초의 흑인 청중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B.B. 킹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윌리엄스는 라디오를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취자들에게 힘을 북돋우고, 방송과 음악의 미래 세대에게 길을 연 멤피스 문화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 주역이었다.

Musician Text

Nat D. Williams, the first African American disc jockey on WDIA Memphis, made history in 1948 by bringing Black voices and culture to mainstream radio. A high school teacher and columnist, Williams blended music, news, and commentary with wit and humor and became a celebrated figure in Memphis's Black community. His show, *Tan Town Jubilee*, helped launch WDIA as the first radio station in the U.S programmed for a Black audience, giving a platform to artists like B.B. King. Williams played a crucial role in shaping Memphis's cultural identity, using radio to empower African American listeners and opening doors for future generations in broadcasting and music.

9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WDIA의 루퍼스 토머스»

약 1950년경,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Rufus Thomas at WDIA

ca. 1950,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10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알 그린»

약 1950년경,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Al Green

ca. 1950,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뮤지션 텍스트

소울 음악의 슈퍼스타 알 그린은 부드러운 보컬과 진솔한 가사로 1970년대 멤피스 사운드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로듀서 윌리 미첼이 이끄는 멤피스의 하이 레코즈(Hi Records)와 계약한 그는 멤피스 로열 스튜디오에서 “렛즈 스테이 투게더(Let’s Stay Together)”, “타이어드 오브 빙 얼론(Tired of Being Alone)”과 같은 불멸의 히트곡들을 녹음했다. 가스펠, R&B, 소울을 절묘하게 결합한 그의 음악은 전 세계 청중을 사로잡으며 음악사에 확고한 위치를 확립했다. 감정이 충만한 무대와 영적 깊이가 어우러진 그의 음악은 멤피스 본질을 드러냈다. 이후 목회자가 된 그는 세속 음악과 가스펠 음악 모두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며, 멤피스가 지닌 음악적·영적 전통을 구현했다.

Musician Text

Al Green, a soul music celebrity, helped define the Memphis sound of the 1970s through his smooth vocals and earnest lyrics. After signing with Memphis-based Hi Records, led by producer Willie Mitchell, Green recorded a string of timeless hits—including “Let’s Stay Together” and “Tired of Being Alone”—at Royal Studios in Memphis. His blend of gospel, R&B, and soul captivated global audiences and cemented his place in music history. Green’s emotionally charged performances and spiritual depth reflected the heart of Memphis soul. Later becoming a pastor, he continued to influence both secular and gospel music, embodying the city’s deep musical and spiritual origins.

11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미니 맥코이(멤피스 미니)»

1955년,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Minnie McCoy (Memphis Minnie)

1955,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뮤지션 텍스트

미니 맥코이, 예명 ‘멤피스 미니’로 잘 알려진 그녀는 20세기 초 멤피스 음악계를 선도한 대표적인 블루스 기타리스트, 보컬리스트, 송라이터였다.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난 그녀는 십대 시절 멤피스로 이주해 빌 스트리트에서 연주를 시작했고, 강렬한 목소리와 뛰어난 기타 실력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남성 중심의 장르에서 드물게 두각을 나타낸 여성 블루스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1927년 미시시피 대홍수를 주제로 한 1929년의 컨트리 블루스 명곡 “독이 무너질 때(When the Levee Breaks)”를 포함해 200곡이 넘는 노래를 녹음했다. 전통적 컨트리 블루스에서 일렉트릭 사운드에 이르는 전환적 음악, 서사적 가사와 창의적 연주로 그녀는 21세기 블루스와 록 뮤지션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Musician Text

Minnie McCoy, known as Memphis Minnie, was a leading blues guitarist, vocalist, and songwriter who helped shape the Memphis music scen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Born in Louisiana, she moved to Memphis as a teenager, performing on Beale Street and quickly earning a reputation for her powerful voice and exceptional guitar skills. One of the few female blues artists who became famous in a male-dominated genre, she recorded over 200 songs, including the 1929 country blues classic “When the Levee Breaks,” which referenced the Great Mississippi Flood of 1927. Memphis Minnie’s transitional sounds, from down-home country to electric, lyrical storytelling, and musical creativity, paved the way for twenty-first-century blues and rock musicians.

12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B. B. 킹과 그의 기타 ‘루실’»

약 1940년경,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B. B. King and Lucille, His Guitar

ca. 1940,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13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W. C. 핸디»

약 1940년경,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W. C. Handy

ca. 1940,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14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토니 그린»

1974년,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Toni Green

1974,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15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넬슨 다이아몬드»

1969년,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Nelson Diamond

1969,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16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넬슨 다이아몬드 & 더 브라더후드»

1969년, 50.8×40.64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Nelson Diamond & The Brotherhood

1969, 50.8×40.64cm, Archival inkjet print

17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터프 그린과 그의 로케티어스»

약 1940년경, 50.8×40.64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Tuff Green and His Rocketeers

ca. 1940, 50.8×40.64cm, Archival inkjet print

18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뉴 브리드»

1967년, 40.64×40.64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The New Breeds

1967, 40.64×40.64cm, Archival inkjet print

19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오리지널 파이브 블라인드 보이즈»

약 1950년경,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The Original Five Blind Boys

ca. 1950,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20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키스»

1967년,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The Kisses

1967,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21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스타즈 오브 페이스»

1976년, 50.08×40.64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The Stars of Faith

1976, 50.08×40.64cm, Archival inkjet print

22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스티퍼 포»

1975년, 50.08×40.64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The Steeper Four

1975, 50.08×40.64cm, Archival inkjet print

23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던컨 시스터즈»

1977년,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Duncan Sisters

1977,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24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판타스틱 사운즈»

1978년, 40.64×50.8cm,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Hooks Brothers Studio

Fantastic Sounds

1978, 40.64×50.8cm, Archival inkjet print

이번 전시에 출품된 모든 작품은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의 작업으로, 전시용 복제본이다.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아카이브는 로드니와 안드레아 헤렌턴이 소장하고 있으며, 멤피스 미술관과 국립 인권 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이다.

All works in the exhibition are by the Hooks Brothers Studio and are exhibition copies. The Hooks Brothers Studio Archive belongs to Rodney and Andrea Herrenton and is a promised gift to the Memphis Art Museum and the National Civil Rights Museum.

2026년, 메μφ스 미술관은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사무소인 헤르조그 & 드 뫼롱 (Herzog & de Meuron)이 설계한 새로운 미술관은 웅장한 미시시피 강을 내려다보는 탁월한 전망과 함께, 재구성된 전시 공간과 교육 스튜디오, 그리고 예술로 채워진 아름다운 옥상 정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미술관은 미국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다. 이를 통해 메μφ스는 미국 내 문화적 수도로 도약할 것이다.

음악, 시민권 운동의 역사, 그리고 남부 유산으로 잘 알려진 메μφ스는 이미 많은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의미 있는 목적지다. 여기에 미술관의 변화를 더해, 메μφ스는 현대미술과 글로벌 문화 교류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In 2026, Memphis' art museum will undergo a historic transformation. Designed by Pritzker Prize-winning architecture firm Herzog & de Meuron, the new museum will feature spectacular vistas over the mighty Mississippi River, reimagined galleries and education studios, and a stunning rooftop garden filled with art.

The new museum will become the most important cultural platform in the American South, elevating the region's reputation as a center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is new museum will position Memphis as a cultural capital within the United States.

Famous for its deep roots in music, civil rights history, and Southern heritage, Memphis is already a meaningful destination for many Korean travelers. With the museum's transformation, it's also becoming a rising hub for contemporary art and global cultural exchange.

더 자세한 내용은 메μφ스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emphisartmuseum.org/>

Learn more about the new Memphis Art Museum here:
<https://www.memphisartmuseum.org/>



기획: 메μφ스 리스닝 랩



- 오티스 레딩, 〈A Change is Gonna Come〉
- 루퍼스 토마스, 〈Walking the Dog - Mono〉
- 부커 T. & 더 M.G.'s, 〈Chicken Pox〉
- 알 그린, 〈Let's Stay Together〉
- 알 그린, 〈Tired of Being Alone〉
- 아이작 헤이스, 〈Theme From "Shaft"〉
- 윌리엄 벨, 〈I Forgot To Be Your Lover〉
- 더 드라마틱스, 〈In The Rain〉
- 앨버트 킹, 〈I'll Play the Blues For You〉
- 슬리피 존 에스테스, 해미 닉슨,
 〈I Can't Afford to Do It (Take 3)〉
- 메μφ스 미니, 〈Me And My Chauffeur Blues〉
- O.V. 라이트, 〈Let's Straighten It Out〉
- R.L. 번사이드, 〈Jumper Hanging Out On the Line〉
- 앤 피블스, 〈I Can't Stand the Rain〉
- 웬디 르네, 〈After Laughter (Comes Tears)〉
- 제임스 카, 〈These Ain't Raindrops〉
- 더 스테이플 싱어즈, 〈I'll Take You There〉
- 돈 닉스, 〈Black Cat Moan〉
- 멜 & 팀, 〈Starting All Over Again〉
- B.B. 킹, 〈Everyday I Have The Blues〉

이 음악은 메μφ스에서 제작된 에글레스턴웍스(EgglestonWorks) 스피커로 재생될 때 가장 뛰어난 울림을 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청취 경험을 선사한다.

Curated by the Memphis Listening Lab



- Otis Redding, *A Change is Gonna Come*
- Rufus Thomas, *Walking the Dog - Mono (o)*
- Booker T. & the M.G.'s, *Chicken Pox*
- Al Green, *Let's Stay Together*
- Al Green, *Tired of Being Alone*
- Isaac Hayes, *Theme From "Shaft"*
- William Bell, *I Forgot To Be Your Lover*
- The Dramatics, *In The Rain*
- Albert King, *I'll Play the Blues For You*
- Sleepy John Estes, Hammie Nixon,
I Can't Afford to Do It (Take 3)
- Memphis Minnie, *Me And My Chauffeur Blues*
- O. V. Wright, *Let's Straighten It Out*
- R.L. Burnside, *Jumper Hanging Out On the Line*
- Ann Peebles, *I Can't Stand the Rain*
- Wendy Rene, *After Laughter (Comes Tears)*
- James Carr, *These Ain't Raindrops*
- The Staple Singers, *...I'll Take You There*
- Don Nix, *Black Cat Moan*
- Mel & Tim, *Starting All Over Again*
- B.B. King, *Everyday I Have The Blues*

This music sounds best when played on EgglestonWorks speakers, which provide the world's finest listening experience and are designed and built in Memphis, TN.



**훅스 브라더스 스튜디오:
메피스 블랙 사운드 사진 기록**

주최
메피스 미술관

협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큐레이터
C. 로즈 스미스

전시 자문
김기라 작가
짐 톰슨 (메피스 리스닝 랩)

디자인
김슬아

리플렛 디자인
금재성

번역
인가희

도움
메피스 미술관
글로벌 카운슬
장 마가렛

***Hooks Brothers Studio:
Framing Memphis's Black Sound***

Organized by
Memphis Art Museum

In collaboration with
Arts Council Korea (ARKO)

Curated by
C. Rose Smith

Exhibition advisory provided by
Kira Kim, artist
Jim Thompson, Memphis Listening Lab

Design by
Sylvie Kim

Leaflet design by
Jaeseong Keum

Translation by
Gahee In

Special appreciation to
Memphis Art Museum
Global Council Member
Marguerite Kymn Chang